고급

2019년도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정답> ②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유적 발굴 현장 모습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유적에서는 약 4~7만 년 전에 제작된 주먹도끼, 찌르개, 돌날 등 (가) 시대의 도구들이 8,000여 점이나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가) 시대는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오답 해설>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③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④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2 - 고조선

정답> ⑤

'누선장군 양복이 병사 7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나라의 우거왕이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성을 나와 공격하자, 양복의 군사가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무제'라는 인물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고조선(위만 조선)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오답 해설>

①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한 나라는 백제이다(정사암 회의).

②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④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3 - 신라 진흥왕

정답> ②

'왕 6년 가을 7월에 이찬 이사부가, 국사(國史)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에 포폄(褒貶)*을 보여 주는 것이니 편찬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서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문사들을 모아서 이를 편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신라 진흥왕 6년(545)에 추진된 신라의 『국사』 편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포폄(褒貶): 칭찬과 비판을 하거나 또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진흥왕은 재위 37년인 576년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오답 해설>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신라의) 왕은 성덕왕(재위 702-732)이다(722, 성덕왕 21).

③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한 왕은 신문왕(재위 681-692)이다(682, 신문왕 2).

④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이라 한 왕은 내물 마립간(재위 356-402)이다(21대 소지 마립간까지 '마립간' 왕호 사용).

⑤ 지방관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한 왕은 문무왕(재위 661-681)이다(673, 문무왕 13).

4 - 초기 국가, 부여

정답> ③

'이 유물은 지린성 마오얼산 유적에서 출토된 장신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나라의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제시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임을 알 수 있다.

부여에는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그래서 왕권이 미약하였다.

오답 해설>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② 철이 많이 생산도어 낙랑과 왜에 수출한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 그중 변한이다.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대표적인 특산물인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⑤ 대가(大加)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린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5 - 고구려의 문화유산

정답> ②

'지안 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답사 계획서가 제시되어 있다. 국내성에서 무용총, 각저총, 광개토 대왕릉비, 장군총 순서로 답사 경로가 정해져 있다.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 있는 고분은 무용총이다. 옳은 설명이다. 무용총에는 수렵도와 무용도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답 해설>

①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한 곳은 (국내성이 아니라) 평양성이다(371).

③ 각저총은 (돌무지덧널무덤 양식이 아니라) 굴식 돌방무덤 양식의 고분이다. 따라서 다양한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았다. 단 씨름도가 있다.

④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금석과안록에서 비의 설립 시기가 고증된 것은 (광개토 대왕릉비가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 중 하나인 북한산비이다(555, 진흥왕 16).

⑤ 벽돌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 주는 것은 (장군총이 아니라) 백제 공주의 무령왕릉이다.

6 - 아단성 전투 이후의 사실

정답> ②

'생각컨대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아서, [그곳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원망스러워하며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군사를 주면 단번에 그 땅을 되찾겠다고 온달이 왕에게 아뢴 후 '마침내 온달이 출전하여 신라군과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하다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로, 온달(?~590)은 고구려의 제25대 왕인 평원왕 때(재위 559-590)과 제26대 왕인 영양왕 때(재위 590-618)의 사람이다. 영양왕 원년인 590년에 명장 온달이 영양왕에게 자청하여 신라 진흥왕에 의해 복속된 죽령(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의 땅을 회복하겠다며 자청하여 출전하였다가 아단성(지금의 서울 아차성) 아래에서 전사하였다.

고구려의 연개소문(?~666)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한 것은 642년 이후의 일이다(영류왕 25년인 642년에 정변을 일으켜 정권 장악).

오답 해설>

① 위(魏) 관구검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환도성이 함락된 것은 동천왕 18년인 244년의 일이다.

③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재위 13년인 312년의 일이다.

④ 태조왕이 (동)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한 것은 재위 4년인 56년의 일이다.

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한 것은 재위 15년인 427년의 일이다.

7 - 백제 의자왕 대의 사실

정답> ②

'소정방(592~667)이 당의 내주에서 출발하니, 많은 배가 천 리에 이어져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열왕이 태자 법민을 보내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였는데, 소정방이 '나는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자 한다'고 말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백제를 공격하러 온 나당 연합군과 관련된 것으로, 자료 속 '이 왕의 도성'에서 '이 왕'은 백제의 제31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의자왕(재위 641-660)임을 알 수 있다.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한 것은 의자왕 2년인 64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백제가 사비[부여]로 천도한 것은 성왕 16년인 538년의 일이다.

③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한 것은 미천왕 14년인 313년의 일이다.

④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친 것은 문무왕 15년인 675년의 일이다.

⑤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한 것은 문무왕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8 - 발해(솔빈부)

정답> ④

'평양의 조선 중앙 역사 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한 문화유산을 전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는 고구려와의 문화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치미란 목조 건축물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이다. '상경 용천부'라는 낱말에서 제시된 자료는 발해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이다.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이 유명하였다.

오답 해설>

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라의 신문왕이다(689, 신문왕 9).

② 백강 전투가 있었던 것은 663년의 일이다. 나당 연합군과 (백제를 구원하러 온) 왜군·백제 부흥군이 맞서 싸웠다.

③ 청해진(지금의 전남 완도)이 설치된 것은 신라 흥덕왕 3년인 828년의 일이다[~851(문성왕 13)까지 존속].

⑤ 지방에 22담로가 설치된 것은 백제 무령왕 때(재위 501-523)의 일이다.

9 - 금관가야

정답> ④

'김구해가 아내와 세 아들, 즉 큰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셋째 아들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법흥]왕이 예로써 그들을 우대하여 높은 관등을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나라'는 법흥왕이 재위 19년(532)에 병합한 김해의 금관가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자료에 나오는 김구해는 김유신(595~673)의 증조부이다.

시조 김수로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나라는 금관가야이다.

오답 해설>

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이다.

②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194, 고국천왕 16).

③ 박, 석, 김의 3성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한 나라는 신라이다(3대 유리 이사금에서 16대 흘해 이사금까지).

⑤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한 나라는 백제이다.

10 - 신라 원성왕 대 이후의 사실

정답> ⑤

'혜공왕 말년에 반신(叛臣)들이 제멋대로 날뛰자 선덕[김양상]이 상대등으로 있으면서 임금 측근의 나쁜 무리를 제거하자고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경신이 이에 참여하여 난을 평정하였고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상대등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여 김경신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니 국인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 하대에는 진골 귀족 간에 왕위 쟁탈전이 심하게 일어나 정치적 상황이 꽤 복잡하게 흘러간다. 따라서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데, 자료에서 선덕[김양상]이 신라의 제37대 왕인 선덕왕(재위 780-785)이고, 그 다음 왕으로 즉위하는 김경신이 곧 제38대 왕, 원성왕(재위 785-798)이다.*

*특징적인 것은 원성왕 이후 왕위에 오르는 18명의 왕들 중 박씨 출신의 세 왕, 즉 신덕·경명·경애왕을 제외한 15명의 왕들이 모두 원성왕계 후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때의 왕위 쟁탈전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혈족 집단 내부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한 종족 혹은 거기서 더 세분된 가문 단위로 나뉘어 이뤄졌던 셈이다.

최치원(857~?)이 국왕(진성 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한 것은 894년의 일이다(진성 여왕 8).

오답 해설>

① 진골 귀족인 김춘추(604~661)가 왕위에 오른 것은 654년의 일이다[태종 무열왕(재위 654-661)].

② 왕의 장인인 김흠돌(?~681)이 반란을 도모한 것은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③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때의 일이다(527, 법흥왕 14).

④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의 일이다.

11 - 후삼국 통일(후백제의 내분)

정답> ④

'완산주의 궁궐 안'이라는 명칭 하에 '왕이 넷째 왕자인 금강을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첫째 왕자가 신하 신덕과 명순의 권유를 받아들여 왕을 금산사에 유폐한 뒤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완산주의 궁궐', '금강'이라는 낱말을 통해 제시된 자료의 상황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867~936)이 큰 아들인 신검에 의해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 유폐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935.3).

이 일이 있은 이듬해인 936년 9월 신검이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에 패배하였다(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

오답 해설>

① 신숭겸(?~927)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927년의 일이다(고려 태조 10).

② 궁예(?~918)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된 것은 918년의 일이다.

③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한 것은 927년의 일이다. 공산 전투 직전이다.

⑤ 왕건(877~943)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930년의 일이다.

12 - 중서문하성과 어사대

정답> ④

왼쪽의 말풍선에는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하시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자네가 (나)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 직책도 중요하니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말풍선의 (가)는 고려의 중서문하성을 가리키고, (나)는 어사대임을 알 수 있다.

ㄱ.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은 기구는 (중서문하성이 아니라) 삼사이다.

ㄴ, 중서문하성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 관서이다. 옳은 설명이다.

ㄷ,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기구는 (어사대가 아니라) 도병마사이다. 어사대는 '순마소'로 바뀌었다.

ㄹ. 어사대는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간쟁과 봉박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13 - 고려 시대의 주요 사건들

정답> ③

(가)에는 '금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하던 묘청이 서경 천도가 어려워지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며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에 일어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왕의 측근 세력들을 제거한 후 왕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에 발생한 이자겸의 난임을 알 수 있다.

(다)에는 '왕이 보현원에 행차하였을 때, 정중부와 이의방을 비롯한 무신들이 다수의 문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에 발생한 무신 정변임을 알 수 있다(보현원 사건).

(라)에는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무리를 모아 봉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에 발생한 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라)'가 된다.

14 - 조선 성종의 업적

정답> ④
왼쪽의 말풍선에는 '조선 전기 편찬 사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시기에 우리의 역사, 문학,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특히 (가)는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악학궤범 등을 편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조선의 성종(재위 1469-1494)임을 알 수 있다.
성종 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국가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1485, 성종 16).
오답 해설>
①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왕은 태종(재위 1400-1418)이다(1401, 태종 원년).
②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왕은 태조(재위 1392-1398)이다(각 1393/1394).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든 왕은 세종(재위 1418-1450)이다(1444, 세종 26).
⑤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한 왕은 세조(재위 1455-1468)이다(1466, 세조 12).

15 - 고려 시대의 불교문화

정답> ①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시대의 불교문화를 탐색하기 위한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답사 일정으로 안동 봉정사(1회차), 논산 관촉사(2회차), 순천 송광사(3회차), 합천 해인사(4회차), 강진 백련사(5회차)가 제시되어 있다.
팔상전은 17세기의 건축물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을 가리킨다(조선 후기). 안동 봉정사에서 유명한 건축물은 극락전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며, 주심포 양식을 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논산 관촉사에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다. 또한 고려 시대의 석불이다. 적절한 내용이다.
③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결사 운동을 펼쳤다. 적절한 내용이다.
④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 적절한 내용이다. 단, 주의할 것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자체는 15세기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⑤ 원묘국사 요세(1163~1245)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친 곳이 바로 강진 백련사이다. 적절한 내용이다.

16 - 고려 공민왕 대의 사실

정답> ①
'고려의 이 왕과 그의 부인인 노국 대장 공주를 그린 초상으로, 현재 국립 고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이 왕'은 고려의 공민왕(재위 1351-1374)임을 알 수 있다.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한 것은 우왕 6년인 1380년에 일어난 진포 대첩(진포 해전)이다. 이때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가 큰 역할을 하였다(최무선도 지휘관으로로 참전).
③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삼별초가 조직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몽골의 제2차 침입 시). 무신 집권자인 최우(집권 1219-1249)가 조직하였다.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어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
⑤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이성계가 이를 계기로 위화도 회군 단행).

17 - 고려 시대 과학 기술의 발달

정답> ③
칠판에 주제로 '○○ 시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맨왼쪽 말풍선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1377, 우왕 3). 이어 중간의 말풍선에는 '사천대에서 천체와 기상을 관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고려 시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ㄱ.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한 것은 조선 정조 대의 일이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독창적인 설계로 제작하였다. 정조 13년인 1789년에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였고, 이어 1793년부터 시작된 수원성 축성에 이용되었다.
ㄴ.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 인물은 최무선(1325~1395)이다(1377, 우왕 3).
ㄷ.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구급방을 편찬한 것은 1236년(고종 18)의 일이다. 단 이때는 상권만 편찬하였고, 이후 1251년(고종 38)까지 중·하권이 편찬되었다(총 3권).
ㄹ. 농업 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인물은 풍석 서유구(1764~1845)이다. 순조 27년인 1827년에 편찬되었으며, 농업 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 경제 정책서이자 백과사전식 농서이다. 임원십육지라고도 한다.

이상에서 고려 시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것은, 'ㄴ과 ㄷ'이다.

18 -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정답> ④
말풍선에 '이것은 대동여지도의 일부로, (가) 시대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란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 시대에 벽란도에서는 송의 상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건원중보가 발행되어 금속 화폐의 통용이 추진된 것은 고려 성종 대(재위 981-997)의 일이다(996, 성종 15).

오답 해설>
① 내상과 만상이 국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②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활발하게 재배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③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1651, 효종 2).

19 - 사계 김장생

정답> ⑤
'이곳 논산 돈암 서원은 호가 사계(沙溪)인 (가)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최근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의 하나로 아들인 김집과 제자인 송시열, 송준길이 함께 배향되어 있으며, 두 차례나 사액을 받은 기호 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문제로, 제시된 자료의 인물은 서인의 영수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1548~1631)을 가리킨다. 참고로 기호 지방이란 경기 기방과 호서(충청도) 지방을 통칭하는 우리의 옛 지방 구분 용어이다. 조선 시대에 경기도와 충청도를 포괄하여 기호 학파가 형성되면서 정립되었다.
김장생은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1685(숙종 11) 간행].
오답 해설>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②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한 인물은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이다.
③ 동호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인물은 율곡 이이(1536~1584)이다(1569, 선조 2).
④ 성학십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인물은 퇴계 이황(1501~1570)이다(1568, 선조 원년).

20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

정답> ①
말풍선에는 '조선 전기의 석탑으로, 국보 제2호'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원나라 탑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석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석탑은 조선 세조 13년인 1467년에 조성된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이다(7세기).
③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된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다(751, 경덕왕 10).
④ 양양 진전사지 삼층 석탑이다(8세기 후반 추정).
⑤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639, 무왕 40).

21 - 조선 인조

정답> ③
왕 1년 3월 14일에 '광해를 폐하여 군으로 봉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광정, 이귀, 김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동년 3월 15년에 '영창 대군 등의 관봉(官封)을 회복하도록 명하고, 인목 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일을 정하도록 예조에 하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재위 1623-1649)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조는 즉위 초 총융청과 수어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하였다(각 1624/1626).
오답 해설>
①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고 유향소를 폐지한 왕은 세조(재위 1455-1468)이다(1467, 세조 13).
②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한 왕은 정조(재위 1776-1800)이다(1781, 정조 5).
④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6등법을 제정한 왕은 세종(재위 1418-1450)이다(각 1443/1444).
⑤ 변급, 신류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벌을 단행한 왕은 효종(재위 1649-1659)이다(각 1654/1658).

22 - 경남 진주

정답> ⑤
촉석루와 김시민 장군 전공비, 강민첨 탄생지, 옥봉 고분군이 제시되어 있다.
촉석루는 고려 후기에 건립된 누각이고, 김시민 장군(1554~1592)은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제1차)을 승리로 이끈 무장이다(1592.10). 강민첨(963~1021)은 동여진과 거란 격퇴에 공을 세운 고려 초의 무신이다. 옥봉 고분군은 진주 옥봉동에 있는 가야의 고분군이다. 이렇게 보면 제시된 지도 속 문화유산은 경남 진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유계춘(?~1862)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곳은 진주이다(진주 농민 항쟁/임술 농민 항쟁, 1862).
오답 해설>
① 김만덕(1739~1812)은 조선 정조 시기 제주도에서 유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여성으로, 전 재산을 기부해 제주민을 살려낸 인물이다.
② 정묘호란에서 정봉수(1572~1645)가 의병을 이끌고 활약한 곳은 평안북도 철산이다(1627, 인조 5).
③ 손암 정약전(1758~1816)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전남 신안군에 속하는 흑산도이다(1814, 순조 14).
④ 신립(1546~1592)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는 충북 충주의 탄금대이다(1592.4).

23 - 조선 순조 대의 사실

정답> ①
왼쪽의 말풍선에는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의 말풍선에서서는 '노비안을 모아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라고 하셨다더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말풍선에서 가리키는 '주상'은 공노비 해방(1801, 순조 원년)을 단행한 조선 순조(재위 1800-1834)임을 알 수 있다.
신유박해로 다수의 천주교도가 처형된 것 역시 순조 원년인 1801년에 있었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③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된 것은 광해군 10년인 1618년의 일이다.
④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에 설치).
⑤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24 - 조선 후기의 상인

정답> ②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묻고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이 개성 상인인 (가)는 사개치부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하였고, 강상(江商)이라 불리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말풍선 속 (가)는 '송상'이고, (나)는 '경강상인'임을 알 수 있다.
송상은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오답 해설>
① 혜상공국은 고종 20년인 1883년 개항 이후 상업 자유화에 밀려 생업에 위협을 받게 된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③ 책문 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한 상인은 만상이다(의주를 중심으로 활약).
④ 금난전권을 행사해 사상의 활동을 억압한 상인은 시전 상인이다.
⑤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 상회가 설립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 평안도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인천에서 설립하였다. 대동 상회사, 평양 상회라고도 부른다

25 - 조선의 관찬 기록물

정답> ⑤
조보, 일성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조선의 관찬 기록물들이 제시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는 춘추관 관원들이 참여하였다(실록청 설치).
오답 해설>
① (제시된 것들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승정원일기(2001)와 조선왕조실록(1997)이다. 조보(朝報)는 국왕의 비서 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② 일성록은 광해군 때부터가 아니라 영조 36년인 176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다(정조의 존현각일기에서 유래).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로 대한 제국이 망한 1910년까지 약 150년간 기록되었다.
③ 비변사등록은 국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변사에서 매일매일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임진왜란 당시 다른 기록과 함께 소실되어 이전의 것은 사라지고, 현재는 광해군 9년인 1617년부터 고종 29년인 1892년까지 총 276년 간의 기록만 남아 있다.
④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존현각일기)에서 유래한 것은 일성록이다. 승정원일기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임진왜란 때 이전의 기록이 소실되어 인조 원년인 1623년부터 고종 31년인 1894년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만이 남아 있다.

26 - 서울의 문화유산(선농단)

정답> ⑤
사직단과 종묘, 문묘, 동관왕묘, 선농단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은 선농단이다. 조선 태조 때부터 설치되었다.
오답 해설>
①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은 (사직단이 아니라) 종묘이다. 사직단은 나라의 신과 곡식을 맡은 신에게 제사를 지낸 제단이다.
② 촉의 장수인 관우를 제사지내는 사당은 (종묘가 아니라) 동관왕묘[동묘]이다.
③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된 곳은 47개소를 제외한 전국의 서원과 만동묘이다(각 1871/1865). 문묘(文廟)는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묘우(廟宇)]이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향교에 설치하였다.
④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문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설치되었다.

27 -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

정답> ④

'이 나라가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1710년에 발행한 은화'가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조선의 인삼은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아 주로 부산의 초량 왜관에서 이루어진 인삼 교역을 통해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일본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하였다.

조선은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오답 해설>

① 광군이 설치된 것은 고려 정종 2년(947)으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② 학문 교류를 위한 (충선왕이 퇴임 후 원의 연경에) 만권당을 설립한 것은 1314년의 일이다(충숙왕 원년).

③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의 사신을 파견한 대상은 명이다(명으로 보내는 사신).

⑤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한 것은 조선 세종 대의 일이다(1438, 세종 20). 원래 야인관이라 부르던 것을 북평관으로 고쳤다.

28 - 남인

정답> ③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윤국형은 우성전과 유성룡의 심복이며 또한 이성중과 한 집안 사람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은 자를 (가)라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 하여 결국 당쟁의 실마리를 크게 열어 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가) 붕당'은 남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인은 이언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끈 붕당은 북인이다.

② 숙종 6년인 1680년에 일어난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붕당은 서인이다.

④ 현종 즉위년(1659)에 일어난 기해예송에서 자의 대비의 기년복[1년설]을 주장한 붕당은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다. 남인은 참최복[3년설]을 주장하였다. 참고로 9개월 동안 입는 복제는 '대공복'이라 한다.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옥사를 주도한 붕당은 서인이다(1589).

29 - 동학

정답> ②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가)의 교주 최재우가 2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경주에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체포 후 대구의 감영으로 이송되어 현재 문초가 진행되고 있으며, 혹세무민의 죄가 적용되어 효수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가)는 철종 11년인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1824~1864)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학은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동학은 이후 1905년 제3대 교주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종교는 기독교이다(1885.8).

③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친 종교는 불교이다(조선 불교 유신회). 사찰령이 공포된 것은 1911년 6월의 일이다.

④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0년대 말과 1920년대 전반).

⑤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종교는 천주교이다.

30 - 반계 유형원

정답> ⑤

'이곳은 (가)가 낙향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계 서당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가)는 반계 유형원(1622~1673)임을 알 수 있다.

유형원은 대표적인 중농학파(경세치용학파)로, 자영농 유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서얼 출신이다.

②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삼한의 위치를 고증한 인물은 구암 한백겸(1552~1615)이다.

③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

④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집필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31 - 대한 제국 시기의 사실(지계)

정답> ④

위에는 '대한 제국 인민으로 전답을 가진 자는 이 관계(官契)를 반드시 소유하되, 구계(舊契)는 무효로 하여 본 아문에 수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에서는 '대한 제국 인민 외에는 전답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으니,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하는 자는 모두 최고형에 처하고 해당 전답은 원주인의 소유를 인정하여 일체 몰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사진 이미지 포함)는 대한 제국이 광무개혁(광무 양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地契)임을 알 수 있다(1899~1904).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것은 러일 전쟁 발발 전해인 1903년 7월의 일이다(용암포를 점령한 것은 4월).

오답 해설>

① 이만손(1811~1891)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린 것은 1881년 2월의 일이다.

②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1883년 10월의 일이다.

③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

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것은 1871년 6월의 일이다.

32 - 갑신정변(김옥균)

정답> ⑤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 백작님께'라는 제목 하에 요즘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망명자 살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청프 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정변을 일으켰지만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 조선 민중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한 그의 개혁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그'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주도한 고균 김옥균(1851~1894)임을 알 수 있다.

ㄱ. 집강소가 설치된 것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일이다(1894).

ㄴ.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한 것 역시 동학 농민 때의 일이다(폐정 개혁 12조).

ㄷ.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이 그러하였듯 갑신정변도)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ㄹ. 국가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혁신(개혁) 정강 14개조 중 12조의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33 - 죽천 박정양

정답> ⑤

'본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 중 귀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였고, 우의가 돈독하여 사절이 왕래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종2품 협판 내무부사 (가)를 초대 주미 공사로 임명하여, 귀국으로 가서 수도에 머물며 교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로,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가) 인물'은 죽천 박정양(1841~1905)이다. 1887년에 초대 주미 공사로 임명되었다(박정양이 초대 주미 공사로 부임하고 퇴임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미행일기』 참고).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던 1898년 10월 당시에는 참정 대신(參政大臣) 자격으로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헌의 6조, (의회식) 중추원 신관제].

오답 해설>

①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 학교를 설립한 인물은 도산 안창호(1878~1938)이다(1908.9).

②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한 인물은 구당 유길준(1856~1914)이다(1895).

③ 영국인 베델(1872~1909)과 제휴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인물은 양기탁(1871~1938)이다(1904).

④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이상설(1870~1917), 이준(1859~1907), 이위종(1887~?)이다(1907.4).

34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정답> ③

제1조에 '중국 상무 위원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2조에는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 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조항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8월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유명한 조항은 제4조로, 여기에서 중국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한 조선 내륙으로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계기가 된 것은 그 직전에 발생한 임오군란 때문이었다(1882.6). 이때 임오군란 진압을 명목으로 청은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해 일본의 무역 독점 지위를 무너뜨리고자 이와 같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 체결을 강요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년 2월까지 주둔).

②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1895년 4월의 일이다(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④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의 일이다. 이후 1898년에 이르러 황국 중앙 총상회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⑤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1875년 9월의 일이다.

35 - 덕수궁

정답> ④

주요 건물로 중화전, 석조전, 중명전, 정관헌, 함녕전, 대한문 등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그림 속 '○○궁'은 덕수궁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고종의 침전이 바로 함녕전이다.
명성 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 건천궁 옥호루이다(1895.10.8).

오답 해설>

①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환궁한 곳은 경운궁(이후 덕수궁으로 개칭)이다(1897.2).
②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 석조전이다(1946/1947).
③ 일제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은 덕수궁 중명전이다(1905.11).
⑤ 궁궐 안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다(1909).

36 - 군국기무처

정답> ①

'초정부적인 정책 의결 기구였다'는 점, '총재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는 점,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였다'는 점, '약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법안을 의결하였으나 6개월여 만에 폐지되었다'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1894년 6월 교정청을 폐하고 대신 설립되어 이른바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기구인 군국기무처임을 알 수 있다.
제1차 갑오개혁 때 공사 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오답 해설>

②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설치된 기구는 삼정이정청이다(1862). 안핵사로 왔던 환재 박규수(1807~1876)가 요청하였다.
③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된 기구는 도교 의식을 주관하던 소격서이다.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자리 잡은 기구는 비변사이다.
⑤ 소속 부서로 교련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둔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다(1880.12).

37 -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정답> ④

'참정 김규홍이 아뢰기를, (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하면서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런데 청인들의 괴롭힘이 심하여 지난해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하여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고자 하는 조정의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윤허를 받은' 내용이 나와 있다. 이범윤(1856~1940)을 시찰관으로 파견하였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료는, 조선 말 고종 대 청과 조선 사이에 벌어진 간도 귀속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대한 제국은 간도를 직접 관할하고자 이범윤을 1903년 7월에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만주(간도)에서 결성된 것은 1911년의 일이다.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동년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가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숭무 학교가 설립된 곳은 멕시코 유카탄 메리다 지역이다. 1910년 11월 지역회 회장 이근영(?~?)이 수십 명의 한인 청년을 모아 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세운 것이다.
②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된 곳은 미국 하와이다. 1914년 6월 박용만(1881~1928)의 주도로 역시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워졌다.
③ 동제사가 조직된 곳은 중국 상하이이다(1912.7).
⑤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는 일본 도쿄이다(1919.2).

38 - 민족 혁명당 결성

정답> ①

'개별적인 의거 활동에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황푸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통일적 총지휘 기관의 확립'을 촉구하는 '대독립당 촉성회에 대한 선언'을 선포하는 등 민족 협동 전선의 제창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합작으로 군관 학교를 설립하여 '통일적 총지휘 기관'의 전위 투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중국 난징 교외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한 것은 1932년 10월의 일이다.
김원봉이 다른 독립운동 단체와 함께 민족 혁명당을 결성한 1935년 7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단재 신채호에 의해) 조선 혁명 선언이 작성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
③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6년 10월의 일이다(중국 베이징).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임병찬에 의해) (대한) 독립 의군부가 조직된 것은 1912년 9월의 일이다.
⑤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된 것은 1919년 9월의 일이다(제1차 개헌).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39 - 정우회 선언

정답> ④

(가)에는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창덕궁 주인(순조)이 53세의 나이로 지난 4월 25일에 서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슬퍼하는 민중들이여! 하나가 되어 혁명 단체 깃발 밑으로 모이자! 금일의 통곡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모아 우리들의 해방 투쟁에 바치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 제국의 제2대 황제인 순종(재위 1907-1910)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대규모의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자 작성된 격문임을 알 수 있다(6·10 만세 운동, 1926.6.10).

(나)에는 '조선 청년 대중이여! 궐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러분! 궐기하라! 우리들이 흘리는 선혈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조선 학생의 이익과 약소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항쟁적 전투에 공헌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봉기를 요청하는 격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26년 1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의열단원) 김상옥(1890~1923)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

②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31년의 일이다(~1934).

③ 고액 소작료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한 것은 1923년 8월의 일이다(~1924년 8월까지 진행).

⑤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105인 사건을 날조한 것은 1911년 9월의 일이다. 이로 인해 신민회의 국내 조직이 사실상 붕괴하였다.

40 - 한국 광복군

정답> ③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가) 총사령부 건물로, 지난 3월 이곳 충칭의 옛 터에 복원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과거 임시 정부가 중국의 도움으로 (가)를 창설하였듯이, 오늘날 이 총사령부 건물도 양국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가)는 1940년 9월에 창설된 한국 광복군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광복군은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일본의 빠른 패망으로 실행 못함, 백범 김구가 『백범일지』에서 이 점을 기록).

오답 해설>

① 김좌진(1889~1930)의 지휘 아래 활동한 군대는 북로 군정서군이다.

②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군대는 대한 독립군단(서일)이다(1921.6).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다(1938.10). 중국 우한 한커우에서 결성되었다.

⑤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한 군대는 한국 독립군(지청천)이다(1930년대 전반).

41 - 회사령 제정(허가제)

정답>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총독부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그 실적을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조선 물산 공진회 회의장 전경을 그린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림에는 경복궁 일부를 헐어내고 물산 공진회장으로 조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바 이는 일제가 조선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물산 공진회가 개최된 것은 1915년 9월이다(~10월까지 진행).

일제는 이 시기(1910년대)에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하였다(1910.12, 허가제 회사령). 옳은 정책이다. 참고로 허가제 회사령은 1920년 4월에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오답 해설>

①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한 것은 일제 강점기 말의 일이다(1938.4).

②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등의 자문 기구를 설치한 것은 1920년 7월의 일이다.

③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9.12).

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한 것은 1936년 12월의 일이다. 참고로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을 제정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

42 - 권업회와 권업신문

정답> ①

'우리 학회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재형 선생(1860~1920)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최재형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최재형은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에도 참여한 바 있다(1911.12).

오답 해설>

②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 교육 진흥에 힘쓴 인물은 보재 이상설(1870~1917)이다(1906).

③ 신흥 무관 학교가 설립된 것은 1919년 5월의 일이다. 기존의 신흥 중학교(신흥 강습소를 개칭)를 점진적으로 폐교하고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④ 한인 애국단 결성과 항일 의거 활동에 힘쓴 인물은 백범 김구(1876~1949)이다(1931.10).

⑤ 신한 청년당 결성(1918.8)과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1919.3)한 인물은 우사 김규식(1881~1950)이다.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43 - 한국 독립군

정답> ②
'이 건물은 승은문으로, 총사령 지청천이 이끈 이 부대가 길림 자위군과 연합하여 만주국 군대를 격파한 쌍성보 전투의 현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지청천이 이끈 부대는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이다.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1933.7).
오답 해설>
①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된 부대는 동북 인민 혁명군이다(1936.3).
③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 독립군단(서일)이다.
④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대표적인 부대는 김좌진(1889~1930)이 지휘한 북로 군정서군이다.
⑤ 조선 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양세봉)이다.

44 - 5·10 총선거

정답> ①
(가)에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백범 김구(1876~1949)가 1948년 2월 10일에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글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가 정부 수립을 앞두고 발표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의 일이다(1948.5.10)
오답 해설>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이승만에 의해) 제기된 것은 1946년 6월의 일이다(1946.6.3).
③ 몽양 여운형(1886~1947)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45년 8월의 일이다(1945.8.15).
④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어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한 것은 1946년 10월의 일이다(1946.10.7). 참고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1946년 7월이고, 좌우 합작 7원칙은 '합의'되었다기보다는 발표된 것이고, 좌우파 세력으로부터 외면당하였다.
⑤ 민족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가 (이승만에 의해) 결성된 것은 1945년 10월의 일이다.

45 - 조선어 학회

정답> ②
주문(主文)에 '피고 이극로, 최현배 외 10명은 함흥 지방 법원 공판에 부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유(理由)에 '(가)는 1919년 만세 소요 사건의 실례에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장래에 기약하는 데는 문화 운동에 의하여 민족정신의 환기와 실력 양성을 급무로 삼아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운동 중 그 기초적 중심이 되는 어문 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써 지도 이념을 삼아 겉으로 문화 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 독립을 목적한 실력 배양 단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본 건이 검거되기까지 10여 년이나 오랫동안 조선 민족에 대하여 조선의 어문 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가) 단체'는 조선어 학회임을 알 수 있다.
조선어 학회는 1933년 10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오답 해설>
① 여유당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직되었다기보다는) 시작된 것은 조선학 운동이다(1934). 정인보와 안재홍이 다산 정약용의 서거 99주년을 지념하여 정약용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③ 국어의 이해 체계 확립을 위해 국문 연구소를 세운 것은 1907년 7월의 일이다.
④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높인 단체는 천도교이다.
⑤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22년~1923년의 일이다. 1922년에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46 - 일제 강점기 말의 사회 모습

정답> ③
제1조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 제국 신민인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전형 후 이를 현역 또는 제1 보충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법령은 1938년 2월에 제정된 일제의 육군 특별 지원병령임을 알 수 있다.
(경성) 부민관에서 폭탄이 터지는 의거가 발생한 것은 1945년 7월의 일이다(부민관 투탄 의거). 당시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이 일제 총독부 고관과 국내 친일파 다수를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신간회가 창립된 것은 1927년 2월의 일이다.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4월까지 진행).
④ 잡지 어린이가 (천도교에 의해) 창간된 것은 1923년 3월의 일이다.
⑤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처음) 발기된 것은 1920년 8월의 일이다. 참고로 1923년 1월 경성(서울)에서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기하였다.

47 - 발췌 개헌

정답> ③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 의원 통근 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되어 탑승한 야당 의원 50여 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5월에 발생한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동년 7월에 정·부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이른바 '발췌 개헌'(제1차 개헌)].
오답 해설>
①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50년 6월의 일이다.
②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49.6.6).
④ 전조선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1948년 4월의 일이다(1948.4.30).
*1948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리고 뒤이어 남북한 주요 단체 대표들 간에 두 차례의 회의(4월 27일과 30일)가 또 열렸다. 이를 '남북 지도자 협의회'[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라고 한다. 그런데 또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간의 회담이 4월 26일과 30일에 각 진행되었다.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 연석 회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회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연석 회의 본회의와 남북 지도자 협의회, 4김 회담을 모두 통틀어 '남북 연석 회의'(이른바 '남북 협상')라고 부른다.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12월의 일이다.

48 - 프로 야구단 정식 창단

정답> ①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의 졸업 정원제를 실시한 데 이어, 중학교 의무 교육을 처음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올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 교육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바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의 일이다('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한국 야구 위원회(KBO)가 만들어진 것은 1981년 말이고, 프로 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어 프로 야구가 시작된 것은 1982년 3월 27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의 일이다. 참고로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2004년 1월에 중단하는 대신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의 일이다.
③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2년 1월의 일이다(~1966).
④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8년 1월의 일이다(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1998년 4월까지 전개).
⑤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

49 - 유신 체제 하의 민주화 운동

정답> ②
제39조 ①항에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40조 ①항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47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헌법은 1972년 12월에 공포된 이른바 '유신 헌법'임을 알 수 있다(제7차 개헌).
유신 헌법에는 악소 조항인 '긴급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명동 성당에서) 발표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
③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것은 1960년 4월의 일이다.
④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진 것은 1987년의 일이다(6월 민주 항쟁).
⑤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1984년 5월의 일이다.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줄여 '민추협'이라고 불렀다.

50 -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⑤
'개성 공단 착공식 개최'라는 제목하에 '정부는 30일 11시 개성 공단 착공식이 북한 개성 현지 1단계 지구에서 남측과 북측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있었던 개성 공단 착공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3.2~2008.2).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
③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